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나훔-

니느웨의 정복, 탈취, 파괴

(나훔 2장 1 - 13절)

나훔서 2장은 니느웨가 몰락한 모습을 그린처럼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략해오는 바벨론 군대들, 그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모습, 그리고 성벽의 방어가 무너지고 약탈을 당하며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라는 선언이 되면서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 합니다.

1. 불기행력의 입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1절).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의 군대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앗시리아를 공격하기 위해 바벨론의 군대가 니느웨로 올라올 것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앗수르는 나훔 선지자가 예언한대로 느부갓네살의 선왕인 나보폴사살에 의해서 멸망 당했습니다. 나훔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조금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예언자(prophet)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장래 일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대언자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는 망한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풍자적인 부탁입니다. 어떻게 하든 소용이 없을 터이나 해 볼 때까지 해 보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치러 온 군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앗시리아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성경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2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의 위신에 합당한 자리로 올려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원수가 쓰러져야 회복될 수 있으므로 앗시리아의 멸망은 눈에 보듯 분명한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백성들은 앗시리아에 의해 많이 희생 되었습니다. 이렇듯 불쌍하게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 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악한 자가 망할 때 성도는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철저하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향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3절).

붉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 그들의 무기를 통해서 앗시리아에게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빨리 달려오기 때문에 앗시리아는 이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4절). 바벨론은 스스로의 힘으로 앗시리아를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가 그의 준권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5절).

바벨론의 군대가 번개 같으므로 앗시리아 왕은 정예부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나 급히 달려간 그들도 결국은 승산 없는 싸움을 할 뿐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원수의 교만을 파괴 시키시고 마침내 당신의 자녀를 평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사자처럼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적자는 순식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를 벌하는 심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2. 니느웨의 파괴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우는도다” (7절).

나훔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것으로 앗시리아가 망한 것은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8절).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니느웨에서 살아보려고 사방에서 몰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 그 성으로부터 도망하며 서라고 하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가 아직 견줄 때 담대하게 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고, 그런 그는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재산을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목숨이 아닌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하여 앗시리아에 있는 금과 은을 노략 하라고 하십니다(9절). 이것은 앗시리아가 다른 나라로부터 약탈해 온 것들입니다. 한 국가의 멸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앗시리아의 군대는 모두 용사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지 아니하시니 무력 하여져서 허무하게 멸망할 뿐입니다. 앗시리아에 이제는 기쁨이 없고 빛이 아닌 어두운 그늘만 있습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11절).

전에 앗시리아에는 침략하여 빼앗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굴에는 아무 것도 없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13절).

하나님께서 앗시리아의 대적이 되니 그들의 힘이 없어져 이제는 선전포고를 하기 위하여 이웃 나라로 파견자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앗시리아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불쌍한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평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마지막 심판을 준비 하실 것입니다. 원수의 교만을 파괴 시키시고 마침내 당신의 자녀를 평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사자처럼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적자는 순식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를 벌하는 심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의 무릎을 꿇을 때 아직도 구원의 여망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구원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3 사명자 대회

10월5일(주) - 11월 23일(주) 50일간

우리는 서울교회를 처음 설립하기 전 모든 성도들이 50일 동안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마루 바닥을 적시었던 눈물의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 매년 교회설립 기념일 전 50일 동안 '사명자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올해는 10월 5일(주)부터 11월 23일(주)까지 50일간 사명자 대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우리 모두 이번 사명자 대회를 통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암담한 오늘의 현실을 넘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한다.

- 주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골4:18)
- 기간: 2003년 10월 5일(주)부터 11월 23일(주)까지 50일간
- 주제찬송: 270장(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 행동강령:
 1. 바르게 믿고 옳게 회개하자
 2.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비전따라 전진하자
 3. 가정 교회 국가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자
- 사명자 대회 새벽기도회: 11월 10일(일) - 11월 22일(토)
- 기간 중 새벽기도회: 5:00 - 6:00
- 강사: 이종윤 목사

<조직>

- 대회장: 이종윤 목사
- 본부장: 왕경래 장로
- 진행분과: 하영수 장로
- 전도분과: 김광신 장로
- 교육분과: 노동환 장로
- 재정분과: 오정수 장로
- 지도: 김윤호 목사
- 홍보분과: 노승성 장로
- 기도분과: 윤찬오 장로
- 인사분과: 성문정 장로

†기도제목†

- 1) 사명자들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적 죄를 회개하고 자복 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2)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받아서 암담한 현실 중에도 하늘을 바라보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 3) 잃은 양을 찾게 하시어 기갈 중에 있는 성령이 의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옵소서.
- 4) 우리의 가족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계대를 이루게 하옵소서.
- 5)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서울교회 새예배당이 사명자들의 헌신으로 헌당하여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되게 하옵소서.
- 6) 전쟁의 위험과 경제적, 사회적 곤경에 처한 나라를 위해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 7) 복음화된 통일조국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취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학교 제6기생 수료식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총회전도학교 12주 과정을 마친 전도학교 제6기생 23명의 수료식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갖는다.

전도학교 6기생들은 교육기간 중 뜨거운 태양과 그칠 줄 모르는 굶은 빗줄기를 뚫고 매주 목요일에 우리교회에서 중점전도지역으로 정한 은마 아파트, 청실 아파트를 4기, 5기와 함께 방문 전도하였으며 주일에는 802호실에서 전도보고와 전도교육을 1시간 30분씩 받아왔다.

한편 지금까지 70인 전도대는 지난 9개월간 방문 전도를 통해 410여명을 전도하였으며 올해 500명 전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오늘 수료식에는 심명숙 집사의 전도 간증이 있을 예정이며 6기 수료생 23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김금준 집사 박찬성 집사 백종명 집사
- 신봉하 집사 안준홍 집사 왕경래 장로
- 원용범 집사 윤용근 집사 최낙준 집사
- 하영수 장로 가원정 집사 김영희 집사
- 남옥진 집사 박진경 성도 송인숙 집사
- 양호선 집사 이명순 집사 이선희 집사
- 이슬미 성도 이창희 집사 이태정 집사
- 전수향 집사 하영숙 성도

7기 전도학교 학생모집

- 시간: 주일 오후 3시 30분 ~ 4시 30분
- 장소: 802호
- 접수: 사무국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 성경 1독자: 김미자 집사(4교구) 강애자 권사(8교구) 윤태욱(13교구) 김민순 권사(14교구)
- 성경 2독자: 최금혜 권사(2교구)
- 권영자 권사(8교구)

자매교회 태풍피해 긴급 구호키로

-농어촌 100교회 운동 결연교회 중 11교회-

태풍 매미의 광풍으로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도 그 피해가 막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교회 전도 위원회가 긴급 조사한바에 의하면 농어촌 100교회 운동 결연 교회 중 경남 2교회, 경북 3교회, 충북 1교회, 전남 5교회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교회는 9월 28일 주일에 수재민을 위한 구제현금을 드리기로 하였다. 격월로 선교현금과 구제현금을 드리는 우리교회는 9월에는 선교현금을 드리는 시간이지만 10월에 드리기로 하고 9월에는 구제현금을 미리 드리게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일에 성정이 모아지기를 바란다.

(피해상황은 별표와 같다.)

교회명	교역자	주소	피해연황
금평교회	정두진	경남 남해군 이평면 금평리 135	십자가네은 부러짐, 장대상 천정 내려앉음, 사택지붕-현관문 파손
금호교회	김기홍	충북 영동군 삼천원 기호리 461	교회지붕파손, 장단 지붕 낙파위험
송천복지교회	윤연기	경북 영덕군 영곡면 송천2리 398	풍할, 울타리 넘어짐
시봉로교회	김태완	경남 진주시 사봉면 사봉리 1201	교회 및 사택 침수
안곡교회	서양수	전남 순천시 서면 안곡리 647-1	십자가탑 쓰러짐
충도교회	이훈자	전남, 완도군 금일읍 충도리	전기시설 파손, 사택파손
흑석교회	홍종기	경북 충도군 통각면 흑석1리 369-2	교회건물 일부 파손, 사택 침수, 교회담장 파손
봉기교회	김학경	경북 충도군 통각면 봉기1리 200	전기시설 파손, 교육관 침수, 교회누수
월전교회	류정두	전남, 여수시 늑면 월전도 월전 68	교회지붕 파손, 풍할 파손, 교회벽 파손
소향도교회	박인자	전남, 완도군 금일읍 사향리(소향도)	교회지붕 파손, 풍할 파손, 교회누수
문병교회	류안복	전남, 여수시 화정면 조별리 문병 408	교회지붕, 사택지붕, 창고지붕 파손

금주의 성구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마 16:6)

"Be careful," Jesus said to them.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yeast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matthew 16:6)

장로 가정 탐방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오정수 장로 이영희 권사 가정(9교구)

평안남도 평원이 교향인 오정수 장로님은 1946년에 오성금 성도와 정도조 권사 사이에서 2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 누이를 따라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세례는 15세에 파란지인 경남 남해에서 받았다. 그 후 고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와, 그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로 교회를 섬기며 83년 장로 직임을 받고 지금까지 오 장로님은 더함도, 덜함도 없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오 장로님은 교회 건축 당시 건축위원장으로 시무하며 어려웠던 IMF 시절 교회 부지 구입과,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으나 때마침 교회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 직영으로 교회를 지으며 2000년 12월 25일 입당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오 장로님은 이렇게 지어진 교회이기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모두가 목격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아내 이영희 권사님은 청년부에서 만났다. 73년 결혼을 하여 슬하에 윤걸, 선혜, 명걸 2남 1녀를 두었다. 오 장로님은 항상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라고 가르치며 자신 또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려고 노력했다. 올해 윤걸과 선혜가 각각 약혼과 결혼을 하였는데, 선혜가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나게 되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곧 엄마가 될 선혜가 아내 이영희 권사처럼 자신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며 조용히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

현재 초등부 부장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 장로님은 교회학교를 향한 그의 사랑은 남다르다. 그러나 아이들의 모습과 사고가 옛날과 사뭇 다른 것을 보고 격세지감을 느

끼나 어떻게든지 방법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시켜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주님의 재차도 기뻐하길 바란다. 이 일은 교사의 헌신과 학부모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 요즘은 교회학교도 소그룹 형태의 성경공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헌신된 교사의 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신다.

오정수 장로님은 1988년 이종윤 목사님을 만나 지금까지 목자와 양로 아름다운 인연을 맺으며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와 목자가 있으나 진정한 교회와 진실한 목자를 만난 것은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이였다고 말씀한다.

마지막으로 오 장로님은 요즘 우리교회에 전도활동이 활발한 것에 새삼 감사하며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지면을 통해 인사를 전하신다. “새가족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오신 그 날부터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부디 우리가 다하지 못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담당해주시고 끝 날까지 주님께 칭찬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헌신해 주십시오.”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임동자 집사(14교구)



추석을 준비하느라고 바쁜 중에 다급한 목소리로 학교 보건선생님의 전화가 왔다. 상현이가 점심시간에 눈을 다쳐서 급히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한다.

바빠서 갈 수 없으니 아들이 걸을 수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다. 나는 상현이가 도착할 때 까지 기도하고 있었다. 친구의 부축을 받고 상현이가 왔다. 아무말도 묻지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다.

상현이는 자기를 부축해 온 친구가 점심 시간에 불러내서 일방적으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데, 그 순간 안경이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눈 속에 들어갔고 눈 속에서 피가 나오고, 눈 속에 들어간 유리조각은 보건실에서 물로 세척하면서 빼냈다고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병원 앞에서 정신없이 서 있

었다. 남편에게 전화하는 동안 주먹질을 한 아이의 엄마가 병원에 도착했다. 나는 기가 막혀서 눈물도 나지 않는데 그 엄마는 우리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며 울기만 하였다. 내가 울어야 할 자리인데도. 의사 선생님은 각막 손상이라며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하셨다.

종합병원에 갔으나 예약이 되어있지 않아 검진을 받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하룻밤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 날이 밝아 새벽기도회 시간이 되어도 기도는 되지 않고 내 마음에는 분노가 일기 시작하였다. 아이를 불러내서 일방적으로 주먹질을 하더니, 순간 아이가 당했을 모욕감과 두려움과 나의 분노가 겹쳐서 온 몸이 떨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마음을 다스려주시기를 바라며 찬양을 했다.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저는 참을 수 없어요. 아니 참기 싫어요. 이런 제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라앉혀 주세요. 말씀으로 주세요.” 라고 기도드렸다.

“너희가 무슨 일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고후 2:10)

아! 주님 제 아이의 눈도 고쳐주시는 거죠?
아침이 되어 아이의 눈은 생각보다 많이 가라앉아 있었고 병원에서도 며칠만 안정하고 잘 쉬면 괜찮아진다고 하였다. 지난 주 목사님 설교 말씀에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옵소서!

박명희 집사(4교구)

늘 부족한 제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크고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뢰하는 중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5월부터 기도 중에 종합병원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문득 들기 시작했습니다. 망설이던 중에 S병원 가정의학과가 친절하고 바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시경 조직 검사를 마치고 의사와 면담할 때였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대뜸 제게 혼자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암에 걸렸으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1-2기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수술 일정을 잡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제게 이번에는 어떤 섭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걸까 하는 기대가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누워서야 병자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6인실 병실에서 함께 입퇴병 중인 환자들이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제게는 기쁨이 샘솟고 있었습니다.

수술직후 조카가 교회 출석을 결심한 일이 즉시 들려왔고, 16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불교신자인 이충형님도 본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으며, 남편과 함께 전도했던 분, 그리고 큰 동생도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에도 응답하시며 그들과 저를 구원시켜 주실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주의 사랑이 온 세상에 어찌 그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이제 두 달이 되어가며, 육체의 수술 뿐 아니라 제 영혼의 연약한 부분도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도 말없이 우리들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니다. 아멘!

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한순간 우리의 의지대로 해결하려 했던 마음들이 가라앉으면서 더 큰 염려 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다치게 한 아이와 그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의 염려를 한꺼번에 잠재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함께 주먹질을 하고 싸우지 않은 나의 아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라는 말씀이 떠올랐다고 말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참 장하고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인하여 그들을 용서함과 같이 나의 아이도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부터 어둡고 더운 지하 주차장에서 소리소문없이 봉사해 온 청년들을 만나보았다. 청년부와 새가정부 소속의 이 청년들은 한사코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며, 성도님들에 대한 당부와 감사의 말을 전해왔다.

76년생부터 71년생에 이르는 이들 청년들은 예배 전후의 복잡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여름 동안 셔츠가 젖도록 무더운 지하주차장에서 땀흘려 왔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섬기고 나서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제목에서부터 성도들이 예배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원한 청년 등 다양한 모습이었다.

차량봉사부가 가장 번잡한 시간은 2부예배 직후로, 청년들은 눈코 뜰새 없이 뛰어다니며 차량정리와 주차를 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성도님들은 간혹 시원한 음료수를 내밀기도 하신다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이들이 가장 크게 기쁨 때는 청년들이 인사를 건넬 때 성도님들 역시 밝게 인사를 보내줄 때라고 청년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나 아

직까지는 대개의 성도들의 무표정한 모습에 더욱 열심히 뛰게 되는 이유를 찾기도 한다. 또한 간곡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차문을 굳게 잠그거나 운전미숙으로 차량정체를 유발하는 성도들이 도움을 거절할 때는 안타깝기도 하다고.

차량봉사부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사랑부들 비롯한 자원이 자유롭지 못한 지체들을 도와 안내하고 운전해줄 차량봉사요원을 찾고 있다. 여성도님들도 대환영이며, 예배 전후 가장 바쁜 시간(보통 1부예배 직후인 오전 10시부터 3부예배 시작 전인 오후 1시 30분 사이라고 한다)에 짬짬이 도와줄 손길도 기다리고 있다. 차량 안내 외에 실질적인 주차, 차량 이동 등을 함께 감당해줄 손길이 절실하다.

취재를 하는 동안 듣직하고도 겸손한 모습으로,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봉사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도 즐겁게 영광받으시리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전면허라는 작은 달란트로 미약하나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서 기쁘다는 청년들! 지하주차장의 낮은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더욱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는다.

나소정(편집부)

수요일 어린이 예배 HOME COMING DAY

9월 24일(수)

수요일 어린이 예배는 오는 9월 24일에 어린이들을 위한 Home Coming Day 행사를 가진다.

대상은 수요일 어린이 예배에 등록된 모든 어린이들과 아직 미등록한 모든 어린이들이며 감사와 찬양으로 드러지는 예배, 영화상영,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선물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도들 가정의 모든 어린이들과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는 주변의 모든 어린이들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길 바란다.

2003 성경암송대회 글로세서를 범위로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성경암송대회 범위는 글로세서 전장으로 현재 각 부서에서 암송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은 조용히 암송을 하며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성경암송대회는 오는 10월 26일(주)에 각 교회 학교와 부서별로 예선을 갖고 대표들이 모여서 31일(금)에 본선을 갖게 된다. 짧은 본문이니만큼 많은 성도들이 암송을 하여 먼저 본인과 가정이 큰 은혜 받고 교회가 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등정

- 이종윤 목사는 23일(화) 대한예수교 장로회 88회 총회에서 주재 해설을 한다. 회기중 주기도문·사도신경 재번역 위원회 가 제출한 새번역을 발표한다.
- 이사: 하영수 장로 대치동 900-12 501호(539-3733)
- 최인수 집사· 고완순 집사(1교구)
성동구 삼성 APT 110-802 TEL)2298-3677
- 이부자 권사(7-6): 성동구 금호2가 500-7 상가 APT 302
- 개업: 김금복 집사(4교구) 아르케, 서초구 반포동 1313 반포프라자 229 TEL)593-1817
- 김유선 성도 개인전 청담동 카이스갤러리(9/26-10/25) 3444-0668
- 금주의 식사: 김종식 성도·이금남 권사 가정.
이남성 집사·최영란 권사 가정
(자녀의 결혼을 감사하며)

편지왔어요

승원교회 23년의 역사 중에서 특별한 한해

서울교회와 이종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번 서울교회에서 파송해 주신 농촌봉사대의 도움을 입은 승원교회 담임 목사 김종권 목사입니다. 이곳 유구의 승원교회에서 목회한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였지만 너무 열악한 환경인지라 그렇게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회가 많은 도움을 주셔서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20명 정도 모이던 주일예배에 30명이 모이고 저녁예배, 수요 기도회도 인원이 부족 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자들만 모이던 예배에 남자 어른들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농촌 전도대원들이 자기 일처럼 열심히 뛰어 주었기 때문에 얻어진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팀의 리더로 오신 왕장로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 승원교회 성도들

고 너무 열성적으로 전도하시고 봉사하시는 것을 보며 은혜가 되고 덕이 되었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봉사해 주셔서 마을에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예도 식사를 준비해 주시며 땀을 흘리신 권사님, 집사님들, 이비용, 한방, 설비 등등 모두가 너무나

무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미약한 힘에 힘있게 가세해 주셔서 금번은 승원교회 23년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특별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들을 보내셔서 은혜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늘 주님의 축복이 서울교회와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승원교회 김종권 목사 드림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88회 총회를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입시생들을 위하여
3. 목회자 신학세미나, 경로대학, 주부대학, 성경대학 등 열린프로그램을 위하여
4.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대치역 2번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거리